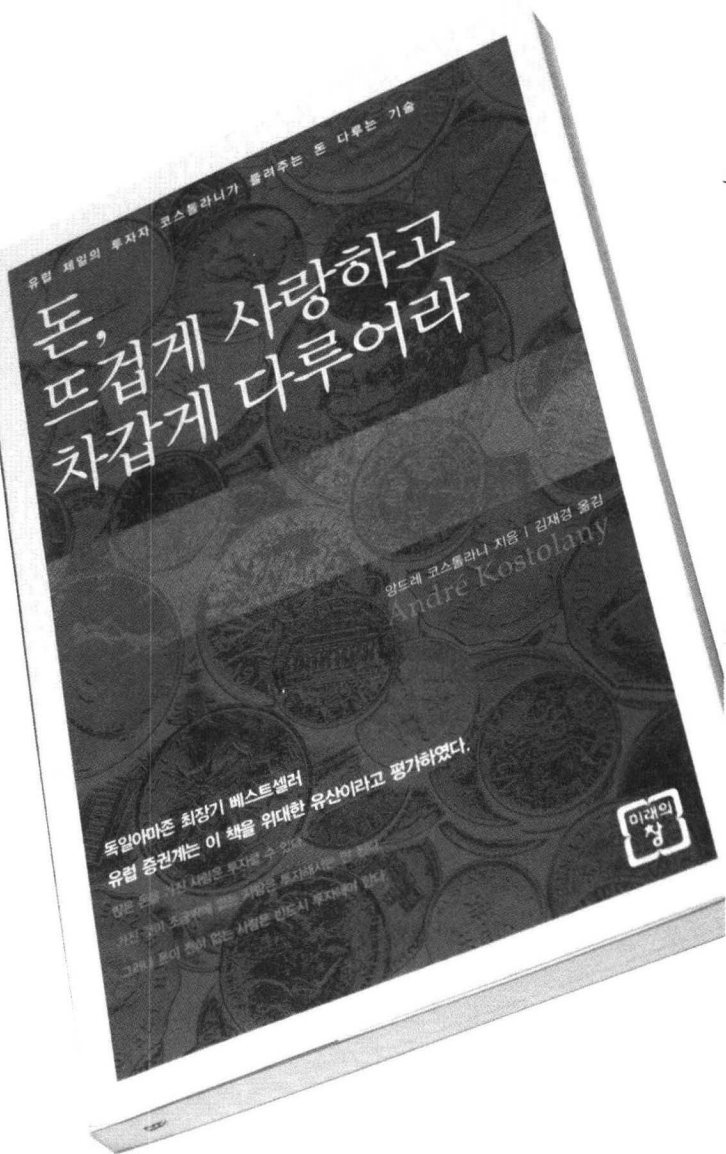


# 더 유익하고 더 현실적인 투자자들의 경제학

##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번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증권가의 신화적 존재였던 코스톨라니가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가 그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경제학이란 어렵다고 지레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학은 아주 쉽다. 경제이론 중에서 현실에서 유용한 내용은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른다', '투자가 늘면 경기가 좋아진다', '화폐는 신용창조를 한다' 등이 고작이다. 이런 내용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정도는 중학교에서도 배운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경제이론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이 즐겨 내세우는 경제학'만 어려울 뿐이다. 이런 경제학은 마치 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다.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기호와 수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 경제수학을 수년간 수련해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경제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사실, 이런 '어려운 경제학'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차별곡선, 한계비용곡선, IS-LM곡선, 헥셔올린정리 등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저 지적 유희일 뿐이다. 수십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이뤄진 모델은 또 얼마나 유용할까? 경제학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경제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기업인이고 투자자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학은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야 경제학이 좀더 유용한 학문으로, 그리고 좀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한 번쯤 이 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현장을 떠난 경제학이 어떻게 사회과학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부자'는 쉽게 될 수 있었다. 열심히 저축하면 누구나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었다. 그때에는 돈이 귀하던 시절이었고 은행이자는 높았었다. 아무리 벌이가 시원찮아도 심지어 끼니를 잇기 어려워도 좀더 쥐어짜서 저축을 하면 그 이자가 재산을 불려줬고, 이렇게 불어난 재산이 다시 더 많은 이자소득을 안겨줬었다. 물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방법이 쉽다는 것일 뿐이다. 어떻게 열심히 저축하고 이자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음 | 김재경 옮김 | 미래의창 | 276쪽 | 값 8,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www.taeri.org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려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등이 있다.

이자를 계속 냈으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은 남아돌지만 쓰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저축한 돈을 대부분 가져다 썼던 기업들마저 이제는 돈이 남아도는 지경이다. 은행은 들어오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기업이 돈을 가져다 쓰지 않자 가계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 한계에 이르렀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이처럼 돈을 마땅히 빌려줄 곳이 없으니, 이자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현재 은행의 저축성금리는 3.4퍼센트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올해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퍼센트에 달했다.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의 재산은 1년에 겨우 0.2퍼센트씩 증가하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5퍼센트를 넘는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최소한 8퍼센트는 넘는다. 저축만으로 재테크를 하면 그만큼 기회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차이가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봤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해질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야 한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은행에 저축한 사람과 경제성장률에 투자한 사람을 비교해 보자. 은행에 저축한 사람은 현재의 이자율이 지속된다면 연간 3.4퍼센트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제성장 부문에 투자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연간 8퍼센트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년 후에는 각자의 재산이 어떻게 변할까? 1.034의 20제곱은 약 1.95이다. 은행에 예금한 사람의 재산은 20년 후 약 2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1.08의 20제곱은 약 4.7이다. 경제성장 부문에 투자한 사람은 20년 후에 재산이 4.7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지금은 재산이 같을지라도, 20년 후에는 경제성장 부문에 투자한 사람의 재산이 은행에 예금한 사람보다 2배 이상 커지는 셈이다. 만약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10퍼센트라면 20년 후에는 6.7배로 증가한다. 20퍼센트에 이를 경우에는 38배로 불어나고, 25퍼센트라면 87배로 불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각종 주식관련 상품이나 펀드 중에는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는 것들이 제법 있다. 내가 과묵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이런 높

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얘기를 주식시장에서처럼 자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주식투자로 큰 재산을 형성했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혹시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보라. 주식투자를 투자가 아니라 도박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지금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수익률 목표는 얼마인가? 투자원금의 200퍼센트가 목표라면 당신은 도박을 하고 있다. 50퍼센트가 목표라면 당신은 투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위험부담은 크다. 아니, 100퍼센트 실패의 길을 당신은 가고 있는 셈이다. 설령 운이 역세계 좋아서 이런 도박이나 투기가 매번 성공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단 한 번의 투자에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투기성 또는 도박성 투자의 유혹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우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자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국제적인 우량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몇 종목 산 다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먹고 몇 년 동안 폭자라”는 것이다. 어쩌면 일반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적립형 주식투자’일 것이다. 특히 주가지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은 투자방법이 아닌가 한다. 이 경우에는 굳이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일반인이 투자대상 기업을 연구하여 고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코스톨라니는 성공적인 주식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 책 서문에 나와 있듯이, 〈캐피탈〉이라는 잡지에 칼럼을 414회나 연재했다. 그리고 13권의 책을 남겼는데 모두 베스트 셀러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그가 죽기 직전에 쓰여 죽은 뒤에 발간된 것으로서 최후의 유작이다. 그만큼 진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이다.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 수준까지 낫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혜로 가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